

제26호·2016년 12월 7일

항만·물류연구본부 | 국제물류연구실
총괄·감수 | 이 성 우 본부장

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'포'트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물류이슈

러·일 철도연결 계획 및 시사점

- 최근 일본 정부는 러시아 정부에게 양국간 철도연결을 제안함
 - 러시아와 일본 사이 철도가 연결될 구간은 '러시아 사할린-일본 홋카이도'로 약 42km임
 - 이중 사할린과 러시아 본토간 연결구간 길이는 약 7km임
- '러·일 철도 연결'은 예전부터 양국 사이에서 제안되어왔음
 - 2008년 '제2회 유라시아 국립철도대학 국제심포지엄'에서 페트라코프(러시아 교통부 산하 연방철도정책실장)는 러시아 교통부가 확정된 철도투자 계획을 발표함
 - 당시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사할린과 러시아 본토를, 2030년까지 러시아 사할린과 홋카이도를 연결할 것을 전망하는 등 '러·일 철도 연결 사업'에 대해 언급함¹⁾
 - 2015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'제9차 세계고속철도운송회의'에서는 전 러시아 철도공사 블라디미르 야쿠닌 사장이 러시아 극동과 일본을 연결하는 사업에 대해 제안함²⁾

<러시아-일본 철도 연결 계획>



자료 : news.com.au, 'Trans-Siberian Railway could go all the way to Japan', <http://www.news.com.au/travel/world-travel/asia/transsiberian-railway-could-go-all-the-way-to-japan/news-story/402bcf12d1fac94ca0f511f7a90f5170>(검색일 : 2016년 10월 20일)

- 1) 월간조선, '2030년까지 러시아-사할린-홋카이도 철도연결 본격 추진', <http://monthly.chosun.com/client/news/viw.asp?ctcd=&nNewsNum=200901100060>(검색일 : 2016년 10월 20일)
- 2) SPUTNIK, '야쿠닌 전철도공사 사장, '러시아-일본'연결하는 철도 사업 제안', <https://kr.sputniknews.com/society/20150707383655/>(검색일 : 2016년 10월 20일)



<러시아-일본 철도 연결 구상>

※일본은 이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 쓰가루 해협에 길이 53.8km의 세이칸터널을 완공한 바 있어 기술적으로 사할린을 통해 일본 본토와 아시아 대륙을 잇는 계획은 실현 가능.



자료: 한겨레, '일본 열도, 사할린 통해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나?', <http://www.hani.co.kr/arti/international/japan/763871.html>(검색일 : 2016년 10월 20일)

러시아 대륙이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일본에 직접 연결될 경우 우리나라 물동량에도 영향이 있을 것을 전망함³⁾

-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번 철도가 건설되면 라일간 물류는 물론 관광과 인적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함⁷⁾

○ 사할린을 통해 러시아 본토와 일본 본토를 연결하는 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나,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봄⁸⁾

- 사할린과 홋카이도 최북단 와카나이를 가르는 라페루즈 해협(일본명 소야해협)의 폭은 약

○ 최근 러시아와 일본의 정치·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함에 따라 '러·일 철도 연결' 실현 가능성이 높음³⁾

- 러시아의 경우 극동러시아 지역의 사회·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며, 일본의 경우 오래 동안 풀지 못한 쿠릴열도(Kuril Islands) 4개의 섬⁴⁾에 대한 외교문제를 풀고자 함
- 오는 12월 중순 러시아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일 시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

○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'TKR-TSR' 철도 연결 보다 도쿄발 철도가 홋카이도를 걸쳐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먼저 연결될 가능성이 거론됨⁵⁾

- 2008년 '제2회 유라시아 국립철도대학 국제심포지엄'에서도 러·일간 철도가 연결될 시 일본과 유

3) 한국경제, '러시아-일본 철도와 북방 2개 섬 합의한다는 일본 언론 보도' <http://www.hankyung.com/news/app/newsview.php?aid=2016100501941>(검색일 : 2016년 10월 20일)

4) 러시아와 일본간의 영토문제가 있는 쿠릴 4도는 쿠나시리(Kunashir), 하보마이(Habomai), 시코탄(Shikotan), 에토로후(Iturup)임

5) 한겨레, '일본 열도, 사할린 통해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나?', <http://www.hani.co.kr/arti/international/japan/763871.html>(검색일 : 2016년 10월 20일)

6) 월간조선, '2030년까지 러시아-사할린-홋카이도 철도연결 본격 추진', <http://monthly.chosun.com/client/news/viw.asp?ctcd=&nNewsNumb=200901100060>(검색일 : 2016년 10월 20일)

7) 한겨레, '일본 열도, 사할린 통해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나?', <http://www.hani.co.kr/arti/international/japan/763871.html>(검색일 : 2016년 10월 20일)

8) 한겨레, '일본 열도, 사할린 통해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나?', <http://www.hani.co.kr/arti/international/japan/763871.html>(검색일 : 2016년 10월 20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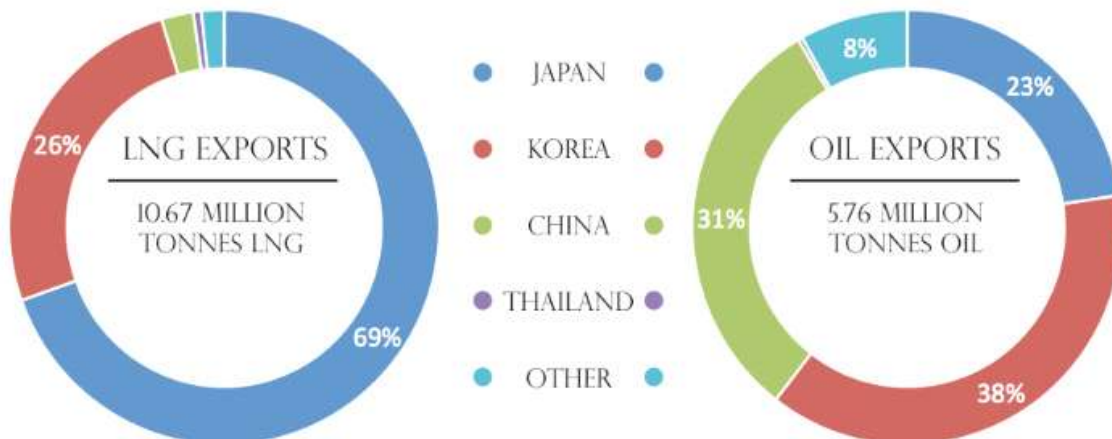


42km로 홋카이도와 혼슈를 연결하는 세칸터널(약 53.9km, 1998년 완공) 구간보다 짧음

일본의 극동러시아 투자

- 일본의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투자는 2009년 기준 약 27억 달러로 최고 투자액을 달성함
- 2012년 기준 일본의 극동연방관구 투자는 98%가 사할린에 집중되어 있으며, 나머지 2%는 연해주 지역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남
- 일본의 사할린 투자는 99%가 넘는 비중이 에너지 자원 추출 등에 집중되어 있음⁹⁾
- 이는 일본의 러시아 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
- '사할린-1' 프로젝트 소유권 중 일본 Sodeco사가 30%를 차지하고 있으며, '사할린-2' 프로젝트 소유권 중 일본 Mitsui사가 12%, Mitsubishi사가 10%를 차지하고 있음
- 2011년 기준 '사할린-2' LNG 중 약 70%가 일본으로 수출됨¹⁰⁾

<사할린-2, 석유 및 가스 수출 비중(2011)>



자료 : ArcticEcon, 'Sakhalin Offshore Oil and Gas Reserves – Sea of Okhotsk – Russia', <https://arcticecon.wordpress.com/2011/12/03/sakhalin-offshore-oil-and-gas-reserves-sea-of-okhotsk-russia/>(검색일 : 2016년 10월 27일)

9) Nina Ershova, "Japanese Investment in Russia: Far Eastern and Western Russian Regions Compared,"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, International Relations WP BRP, July. 2014(2014), pp. 6-8.

10) ArcticEcon, "Sakhalin Offshore Oil and Gas Reserves – Sea of Okhotsk – Russia," <https://arcticecon.wordpress.com/2011/12/03/sakhalin-offshore-oil-and-gas-reserves-sea-of-okhotsk-russia/>(검색일 : 2016년 10월 27일).



- 최근 러시아 정부는 헥타르법, 선도개발구역,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극동지역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음
- 일본은 러시아의 기대에 호응하여 극동러시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
- 올해 5월 소치에서 양국 정상은 만나 일본은 총규모 1조 엔(약 10조8,000억 원)이 넘는 8개 항목의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함¹¹⁾
- 일본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10월 25일, 사할린-홋카이도 교량 건설을 포함해 에너지 개발, 운송, 의료 분야 등 18개 항목의 경제협력을 일본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힘
- 일본 기업들 중에는 구체적인 시행을 검토 중인 기업도 있으며 일본국제협력은행(JBIC: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)도 일본 기업의 극동투자를 지원할 계획임
- 18개 항목의 경제협력 사업이 모두 실현될 시 투자 규모는 1조 루블(약 18조원)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¹²⁾

시사점

- 러시아와 일본간의 경제협력 방안인 철도 연결 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양국가간에서 제시된 사업이지만 왜 오늘날 다시 이슈화가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
- 러시아는 2013년 우크라이나 병합 등으로 인한 서방의 경제 제재를 극동러시아 투자개발을 통해 국가 경제를 도모하고자 함
-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등의 투자정책을 제안하였으며, 중국과 일본의 극동투자 금액은 각각 약 7,500억 루블, 약 1조 루블임¹³⁾
-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2018년부터 30년간 연 380억 m³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맺었으며, 이는 약 410조원이 넘는 금액임¹⁴⁾
- '라일 철도 연결 사업' 및 '라중 천연가스 공급 사업'은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으로 제

11) The Huffington Post, “오바마 달래고 푸틴 품은 아베의 배짱,” http://www.huffingtonpost.kr/lee-hakyung/story_b_12464860.html?utm_hp_ref=naver(검색일 : 2016년 10월 20일)

12) News1뉴스, “꿈의 유라시아 하이웨이 날아가나…러·일 18개 경제 협력 논의,” <http://news1.kr/articles/?2814556>(검색일 : 2016년 10월 27일)

13) Вести ‘КНР и Япония предложили РФ проекты на 1,75 трлн руб’, <http://www.vestifinance.ru/articles/76785>(검색일 : 2016년 10월 27일)

14) 매일신문, “세상의 창]한반도, 정말 큰일 났다,” http://www.imaeil.com/sub_news/sub_news_view.php?news_id=50174&yy=2016(검색일 : 2016년 10월 20일)



시된 'TKR-TSR 연결사업'과 '남북러 가스관 사업'과 유사함

- 라중 천연가스 공급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미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해 한국과 러시아는 논의 중이었음
- 2008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2015년부터 북한을 관통하여 연간 750만 톤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¹⁵⁾, 계속되는 북한의 정치적 도발 및 크림 병합에 따른 러시아의 경제난으로 '남북러 천연가스 파이프 연결사업'보다 '라중 천연가스 공급'이 더 빠른 시기에 실현된 것으로 분석됨
- 이와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'라일 철도 연결 사업'이 'TKR-TSR 연결사업'보다 더 빨리 실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옴
- 과거와는 달리 러시아와 일본의 정치·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으며, '라일 철도 연결 사업' 실현을 위한 양국간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
- 전 러시아 연방 상원의원인 루슬란 카타로프 첼랴빈스크주 부주지사는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정 차원에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일본보다는 한반도를 통과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언급함
-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철도 연결 후 경제적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선 경제 프로젝트 또한 늘려야 한다고 함¹⁶⁾
- 홋카이도·사할린·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철도가 완공되면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한국은 동북아 역내 국가들 중 유라시아 대륙과 육상으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로 남게 됨
- 라일 철도연결 사업은 향후 동북아 지역의 교통·물류 판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며, 이는 한국의 러시아 극동에서의 위상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진출 계획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58, usea1004@gmail.com

15) 한겨레, '일본 열도, 사할린 통해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나?', <http://www.hani.co.kr/arti/international/japan/763871.html>(검색일 : 2016년 10월 20일)

16) 중앙일보, '연해주 개발부터 고속철도까지...지금에 러시아에 투자할 때', <http://news.joins.com/article/20790622>(검색일 : 2016년 10월 29일)

물류동향

얀덱스, 물류회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맺음

- 러시아 종합포털사이트 안덴스는 러시아 물류회사 'PECOM(ПЭК)'사와 '얀덱스 딜리버리 (Yandex Delivery)'사와 물류파트너십을 맺음
 - 얀덱스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들에게 상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임
 - 약 160개 상품을 러시아 전역 123개 도시로 운송이 가능해지며, 각 지사를 기준으로 약 300km 반경의 다른 지점에 특급 운송 서비스도 가능해짐
- '얀덱스 딜리버리'는 기존의 노하우를 통해 신흥 시장인 전자상거래 사업을 점진적으로 개발하고자 함
 - '얀덱스 딜리버리'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물류 파트너사 선택에 신중을 가하였으며, 물류회사 'PECOM'사와 파트너십을 맺음

<러시아 물류회사 'PECOM'사 지사>



자료: <http://pecom.ru/contacts/list-filials/#>(검색일: 2016년 12월 3일)

자료: http://logirus.ru/news/transport/pek_dokatilas_do_yandex_dostavki.html(검색일: 2016년 12월 3일)

이하림 연구원

051-797-4758, harimyi@kmi.re.kr